

국내항공기 보유현황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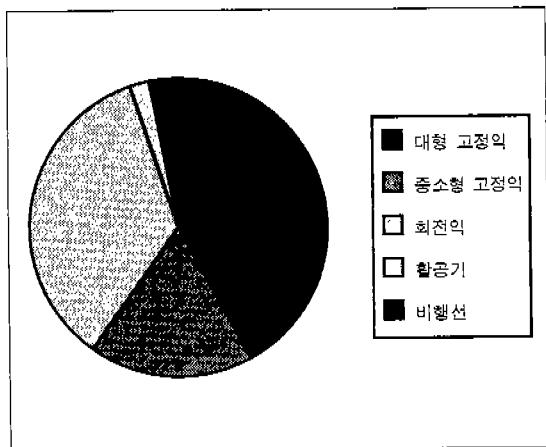
12.31 기준 국내 항공기 총 보유대수는 240대이며, 이중 고정익이 63.4%, 헬리콥터가 35.8%이며, 기타가 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기를 고정익, 회전익(헬리콥터), 활공기(글라이더), 비행선 등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고정익 항공기는 대형기(100석급 이상) 및 중·소형기(100석급 이하)로 구분했을 때 항공기 보유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보유 현황〉

(단위 : 대, %)

구 分	고 정 익			회 전 익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계
	小 計	대형기	중·소형기				
보유대수	152	106	46	86	1	1	240
比 重	63.4	44.2	19.2	35.8	0.4	0.4	100



연도별 도입현황

항공기 도입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매년 도입이 증가(연평균 증가율 15.5%)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형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도입(생산 포함)이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기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부정기 운송사업용 및 공공기

관과 기업의 헬리콥터 구매 동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용도별 보유현황

국내보유 항공기는 크게 사업용 144대(60.0%), 공공목적용 42대(17.5%), 자가용 54대(22.5%) 등 3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기 운송사업용은 총 106대로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고 있는 대형 고정익 항공기이다. 단, 현재 운용 중에 있는 단순임차 항

공기 22대(대한항공 3, 아시아나항공 19)는 동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부정기 운송사업용 항공기는 총 28대로서 회전익 항공기와 중·소형 고정익 항공기가 사용되며,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사용사업에는 헬리콥터 25대(89.3%)와 중·소형 고정익 항공기 3대(10.7%)가 사용되고 있으며, 헬리콥터의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 사용사업 전용으로는 중·소형 고정익 7대와 헬리콥터 3대 등,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항공촬영 및 지도제작 등에 이용되고 있다.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헬리콥터 41대(97.6%) 및 소형 고정익 항공기 1대(2.4%) 등 총 42대로서 주로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찰업무(경찰청), 해상구난(해경), 소방·구난(각 시·도 소방본부), 산불 및 병충해 방제(산림청) 등 용도의 특수성이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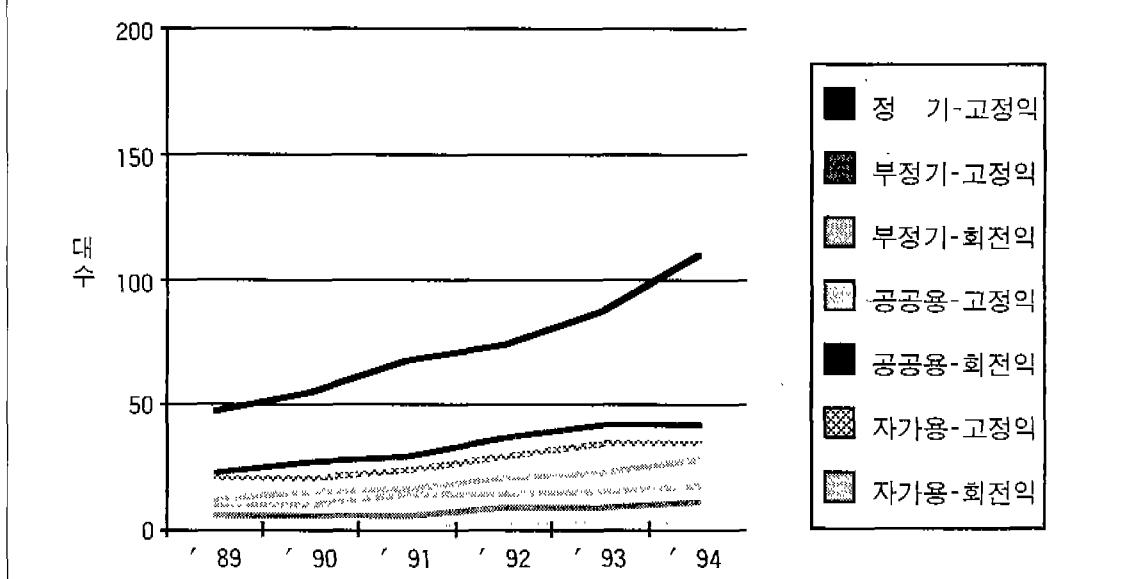
(단위 : 대, %)

구 분	~'69	'70~'79	'80~'89	'90	'91	'92	'93	'94	계	연평균증가율
정 기 운 송 사 업	小 計	-	13	34	9	10	12	14	106	17.3
	고정익	-	13	34	9	10	12	14	106	17.3
	회전익	-	-	-	-	-	-	-	-	-
부 정 기 / 사 용 사 업	小 計	-	6	14	1	1	5	4	38	16.0
	고정익	-	4	4	-	-	1	-	10	5.7
	회전익	-	2	10	1	1	4	4	28	21.1
공 공 목 적	小 計	-	5	18	5	4	6	4	42	10.7
	고정익	-	1	-	-	-	-	-	1	-
	회전익	-	4	18	5	4	6	4	41	11.0
자 가 용	小 計	5	3	22	-	12	4	6	54	15.8
	고정익	3	3	12	-	10	4	3	35	18.1
	회전익	1	-	9	-	2	-	3	17	14.2
	기 타	1	-	1	-	-	-	-	2	-
計	5	27	88	15	27	27	28	23	240	15.5

註) • 국내 생산분 포함.

• 연평균증가율은 '90~'94 기준.

연도별 도입 추이



필요성이 증대되어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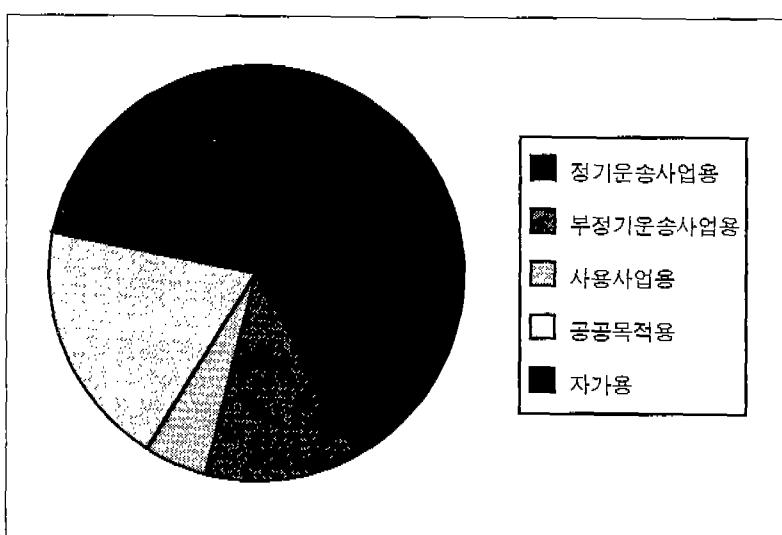
순수 민간수요라고 볼 수 있는 자가용 항공기는 총

54대로서 중·소형 고정익 35대(64.8%), 헬리콥터 17대(31.5%), 기타 2대(3.7%)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 대, %)

구 분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계
	대형기	중소형기				
정 기 운 송 사 업 용	106	-	-	-	-	106
부정기운송/사용사업용	-	3	25	-	-	28
항 공 기 사 용 사 업 용	-	7	3	-	-	10
小 計	-	1	41	-	-	42
공공목적용	경찰구단	-	-	15	-	15
	해상구단	-	-	1	-	1
	소방구단	-	-	6	-	6
	산불방제	-	-	18	-	18
	기 타	-	1	1	-	2
小 計	-	35	17	1	1	54
자 가 용	교육훈련	-	23	-	1	1
	방송보도	-	4	3	-	7
	수 송	-	4	11	-	15
	농 업	-	3	-	-	3
	어군탐지	-	-	1	-	1
	기 타	-	1	2	-	3
계	106	46	86	1	1	240

용도별 보유대수



실제 운용목적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및 대한항공의 교육훈련용 25대(46%), 방송언론사의 방송증계 및 보도·취재용 7대(13.0%), 대기업의 VIP 수송용 등이 15

있으며, 특히 회전익 항공기는 Eurocopter(11대), Bell(6대), 現代技術開發(5대)의 제품이 22대로서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대(27.8%), 기타 7대(13.0%)로 운용되고 있다. 이중 특히 기업의 업무용(VIP 수송 등)으로 보편화 일로에 있는 헬리콥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종별 보유현황

국내 민간(관공서용 포함) 항공기는 총 65개 기종으로 고정익항공기가 40개 기종(대형 15기 종, 중·소형 25기종), 회전익 항공기가 23개 기종, 기타가 2개 기종이나 정기운송사업용의 대형 고정익 항공기를 제외한 기타 용도의 항공기는 보유기종이 매우 다양하여 특정기종에 대한 두드러진 선호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는 Boeing(49대), Airbus(31대), McDonnell Douglas(16대), Fokker(10대) 등 4개 제작사의 15개 기종, 106대의 대형 고정익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A300-600이 21대(19.8%), B747-400 21대(19.8%), B747-200 13대(12.3%), A300-200 10대(9.4%), F-100 10대(9.4%) 등으로 집계되었다.

부정기운송사업 및 사용사업 용 항공기는 고정익 10개 기종, 회전익 12개 기종이 운용되고

공공목적용 항공기는 고정익 1개 기종, 회전익 11개 기종이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Bell 및 500D 계열 헬기가 각각 25대(61.0%)와 9대(22.0%)로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항공기 운용인력이 대부분 軍(육군항공대 등)에서 조달됨에 따라 조종과 정비에 익숙한 동 기종을 선호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 항공기는 고정익 15개 기종, 회전익 9개 기종이 운용되고 있으며 고정익 부문에서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대학교의 교육훈련용 소형항공기 PA-28-200(8대) 및 M20J(7대)가 전체(35대)의 대부분인 42.9%를 차지하고 있고, 회전익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VIP 수송 등 업무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S-76이 7대로 전체(17대)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자별 보유현황

국내 민간(관공서용 포함) 항공기는 총 240대이며, 대

한항공이 112대(46.7%),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이 18대(7.5%), 경찰청이 15대(6.3%), 아시아나항공이 14대(5.8%)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고정익 항공기(총 106대)는 정기운사업용으로서 대한항공이 92대(86.8%), 아시아나항공이 14대(13.2%)를 보유하고 있고, 중·소형 고정익 항공기(총 46대)는 자가용, 부정기운송 및 사용 사업용, 공공목적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15대(32.6%), 항공대학교가 8대(17.4%), 기타가 23대(50%)를 보유하고 있다.

회전익 항공기(총 86대)도 자가용, 부정기운송 및 사용사업용, 공공목적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림청이 18대(20.9%), 경찰청이 15대(17.4%), 삼성항공이 8대(9.3%), 한국항공이 8대(9.3%), 서울항공이 6대(7.0%), 기타가 31대(36.1%)를 보유하고 있다.

기
다
립
니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록일망정,
때, 회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소식, 개인소식 무엇이나 좋습니다.
- 관계된 사진 또는 대표자 사진 첨부하여 내용을 본지 편집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